

SK케미칼, 친환경 기부포인트제 시행

SK케미칼(대표 김창근)은 2월부터 임직원들의 친환경 활동을 포인트로 계산해 개발도상국 등을 지원하는 <4G 기부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월13일 발표했다.

4G는 친환경(Green), 해외 사회공헌(Global), 공익(Good), 기부(Give)를 뜻한다.



임직원들이 자전거·도보 출퇴근, 친환경제품 구매, 환경정화 활동, 환경영화 감상, 환경 아이디어 제안 활동 등에 참여하면 개인 계정으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포인트를 기부하면 SK케미칼에서 지원하는 <매칭 포인트>를 더해 아프리카 행복 우물 조성, 워터콘(태양열을 이용해 식수를 얻는 기구) 보급, 태양열 조리기 보급 사업 등 개발도상국 생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SK케미칼은 2013년 총 260만포인트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60만 포인트는 우물 13개,

워터콘 1400개, 태양열 조리기 100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4G 기부포인트제는 구성원들의 친환경 활동과 개도국 필수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이라며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2/13>